

큰 길을 열고, 돌들을 제하고, 마지막에는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라고 했다(10절). 큰 길은 어떤 길인가? 모든 민족이 올 수 있는 길이다. 돌들을 제하라는 것은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들(문화적, 인종적 편견들)을 없애라는 것이다. 그렇게 해서 237을 살리는 깃발을 들라는 것이다. 그 시작이 다민족 사역이다. 그때에 내가 살고, 모든 축복과 상급이 올 것이라고 했고(11절), 그때에 사람들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요, 잃어버리고 버림받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성읍과 나라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(12절). 이것이 무슨 말일까? 237 나라를 살리는 깃발을 드는 시작이 다민족 사역이고, 이 축복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면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것이다.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겠다.

1. 다민족 사역이 왜 중요한가?

- 1) 첫 번째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모든 축복을 놓치고 오히려 이방민족의 포로로 간 이유가 이것이다.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, 절대 미션을 놓친 것이다.
- ① **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으로 보내 복의 근원을 삼은 이유가 무엇인가?(창12:1-3)**
가나안은 그리스도의 언약이다. 그리스도가 오실 땅, 곧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다.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.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늘의 복을 누릴 자가 되었다는 말이 그것이다(엡1:3-5). 어떤 대적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. 그러면서 마지막 주신 언약이 “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” 했다.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고, 복음의 결론이다. 첫 번째 이스라엘이 이것을 놓친 것이다. 먼저 구원받고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 자기들 밖에 몰랐다(개인 이기주의, 국가 이기주의). 그러면서 무너진 것이다.
- ② **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휘두르며 분노를 한 것이 이것 때문이다(요2:13-17).**
유대인들이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장사한 장소가 모든 민족이 예배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었던 것이다. 우리가 교회 안에 세가지 뜰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. 자기들 뜰에는 하나님께 흠없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쳐버린 것이다.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를 놓쳤다.
- ③ **3시대가 오는 이유도 이것이다.**
교회가 무너지니 현장도 무너지고, 후대도 무너지는 것이다. 딱 두가지를 놓쳐서 그렇다. 인생 모든 문제의 절대 해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놓치고, 절대 결론인 전도와 선교를 놓쳐서 그런 것이다. 이스라엘은 은혜를 놓치고 영적 교만에 빠졌다. 그리고 다민족 선교는커녕 이방인이라고 멸시를 했다(요나)
- 2) **반대로 우리가 참된 전도와 선교, 그 중에 다민족 사역을 제대로 회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?**
- ① **성경의 램넛트들을 모두 다민족과 이방의 왕들 앞에 서게 하셨다.**
1세대들이 복음을 놓쳐 노예, 포로, 속국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후대들을 램넛트로 세우고, 그들을 왕 앞에 서는 쓰밋으로 세운 것이다(애굽 왕 앞에 선 요셉과 모세, 시57편의 다윗, 다니엘과 세 친구, 에스더). 이들을 TCK로 만드시고, 세계화시켜 강대국에 모인 다민족을 살리게 한 것이다. 이 시대 미국에 사는 우리가 중요한 이유다.
- ② **하나님이 핍박 속에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인가?**
두가지를 했다.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했고, 유대인들을 넘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이다(행11:19-21)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(행11:21),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의 경제 축복까지 누렸다.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.
- ③ **우리가 오히려 모든 민족을 향해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선다면 영적 경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다(사60:5)**
빛의 경제라는 말은 어둠이 장악한 경제를 찾아오는 것이다. 그 축복으로 세상을 살리는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선교 경제이다. 그 일을 지속해야 할 후대를 살리는 힘을 가진 경제까지를 빛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다.

2. 이제 어떻게 다민족 사역을 하면 될까?

- 1) **계속 나를 세계화시키고, 우리 교회를 세계화시켜야 한다.**
다민족 선교를 위한 세계화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화와 다르다. 모든 생각, 문화, 실력(그 중에 언어), 삶의 그릇이 다민족 살릴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.
- 2) **이제는 다민족 살리는 일에 집중하라. 한 사람만 살려도 그 한 사람이 천을 이루는 것이다.**
우리 교회의 다민족 사역이 이렇게 시작되었다. 이제는 본론을 향해 가야 한다(30나라를 바탕으로 237까지)
- ① **전도 대상자를 내 언어권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언어권에 집중해서 증거를 얻어야 한다.**
복음은 언어 장벽도 뛰어 넘게 하신다. 우리 교회의 다민족들은 거의 영어가 부족한 1세대들이 전도한 것이다. 그래서 우리의 사업, 직장, 학업까지도 다민족 선교를 두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보라. 의료 선교, 군 선교, 대학 선교의 키도 다민족이 중심이 되도록 집중해보라.
- ② **교회 안의 모든 부서가 다민족 중심이 되고, 함께 마음을 나누고, 함께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.**
하나의 마인드이고, 하나의 영이고, 하나의 팀이고, 하나의 교회이다.
- 3) **정확한 복음을 전하고, 함께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팀이 되게 만들라.**
- ① **언어, 인종, 민족, 나라가 달라도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은 같다(창3장)**
그래서 해답도 같은 것이다. 하나님이 직접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한 분이다(오직 그리스도)
- ② **모든 것이 달라도 하나로 통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이 있을 때이다(오직 하나님의 나라)**
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.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, 천국이 배경이다.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인도, 이방인도 아닌 동일한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다(엡2:19). 이 비밀을 정말 누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다. 언어와 음식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해 살아도 지옥이 될 수 있고, 모든 것이 다른 다민족이 결혼해 살아도 천국 될 수 있는 비밀이 이것이다. 거기에 흑암이 깨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된다.
- ③ **모든 것이 다르고, 언어의 능력이 부족해도 성령의 능력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(오직 성령의 능력)**
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오인1조의 한 팀을 되었을 때 그들이 세계를 바꾼 것이다(행13:1-3)

결론-다민족 사역,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, 특히 모든 다민족이 모이는 강대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이유이다. 지금까지 다민족 사역에 기초를 만들어온 우리 교회는 더 깊이 들어가고, 완전히 원네스 만들어야 한다. 절대로 무너질 수 없고, 모든 응답과 축복이 쏟아질 수 밖에 없는 다민족 절대 망대의 작품들로 서기를 축복한다.